

ESG Wannabe

SK증권 Active전략팀

핸드셋/전기전자, 이동주. 3773-90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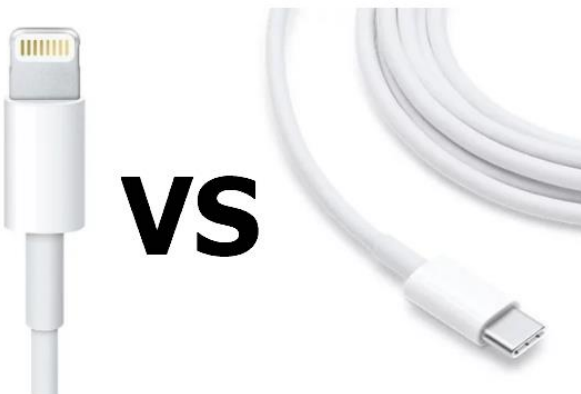


USB-C 타입, iPhone도 바뀌나

● 맥, 아이패드,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는 이미 도입

- 지난달 4월 EU 입법부 유럽의회 소속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바이스 충전 단자를 USB-C 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 USB-C가 단일 표준으로 도입
- EU에서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전자 폐기물 감축을 위한 것. EU 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유럽에서 5억개 이상의 충전기가 출시되는데 충전 단자를 통일하면 충전기 폐기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
- 유럽 내 USB-C타입이 단일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애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. 애플 역시 제품에서 라이트닝 단자를 빼는 추세. 맥, 일부 아이패드,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제품 등에 USB-C 타입을 적용. 핵심 제품인 아이폰과 액세서리류에는 여전히 라이트닝 단자 고수
- Apple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ESG에 대한 경각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충전 단자 시장 중심이 USB-C 타입으로 커져간다는 점, 무엇보다 유럽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2023년 아이폰15부터 라이트닝 대신 USB-C 타입 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

Apple 라이트닝 vs USB-C



자료: ITWORLD

아이패드에 채택된 USB-C



자료: Cnet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매수 / 15%~15%→중립 / -15%미만→매도